



L.J.E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몰랐어요.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들여도 됐을 텐데... 정말,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해서, 돈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

J.C.W

맞아요 저의 어머니께서 옛날에는 눈도 먹고 시냇물에서도 논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도시에서의 물놀이나 눈 먹기는 일명 미친 짓(?)이죠. 저도 그런 놀이가 하고 싶어요.

최정희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인간

정말 죽입니다. 이제부터 나도 샤워 물 받아 써야겠네!!!!!!!

오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불리지 않겠조...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물 절약 칼럼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글 _ 이성수(관리/사무직)

우연히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읽게 된 내용입니다. 2003년도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관리비 예산이 5,386억 원 든답니다. 한강이 3,019억 원, 금강이 496억 원, 영산강이 396억 원 그리고 낙동강이 1,476억 원 이랍니다. 이들 항목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내용이 교육, 홍보, 민간 수질감시 활동에 181억 원이 그리고 수질개선 사업비가 551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들 비용의 대부분이 우리가 내는 수도물 값과 물 이용 부담금인데 낙동강(100원/톤당)을 제외한 나머지 3대 강 유역권의 주민들은 톤당 12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가 쓸데없이 강물, 하천에 오물을 투척하고, 홍수만 나면 별별 오물을 다 흘려 보내고, 냇가에서 세차하고, 가축 배설물과 생활 하수를 마음대로 버리는 일 등의 결과 입니다. 나만 괜찮다면 남이 고생하는 것쯤이야 상관없다는 못된 이기심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자화상 입니다. 새삼 어릴 적 목마르면 동네의 웅달샘에서 마음대로 물을 마시고, 더우면 상의 훌훌 벗어 던지고 마을 앞 냇물에서 수영하던 때가 너무 그리웁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물 이용 부담금도 없었지요.

물사랑 아이디어

샤워 물 버리세요?

글 _ 유경아(주부)

물 절약을 위해 저는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 그건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샤워할 때 그냥 버려지는 물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난답니다. 그래서 빈 욕조의 마개를 막은 후 샤워를 한답니다!!

뭔 소리냐구요?^^ 비누칠은 욕조 밖에서 한 후 간단히 행구고 다시 욕조 안에 서서 깨끗이 씻죠. 그러면 당연히 물이 모이잖습니까? 그 물은 여러 모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작은 볼일 본 후 변기 물 내리지 말고 한 바가지 떠서 흘려 보내죠, 걸레 빨 땀 정말 뿌듯합니다. 때론 베란다 청소도 하구요. 우리 아들 장난감 때 빼는 데는 왓답니다^^ 이렇게 여러 모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샤워할 때마다 그냥 흘려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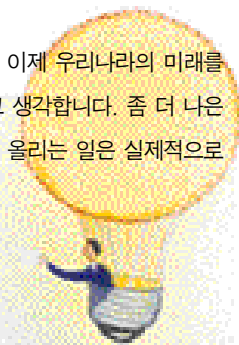
수도 요금 인상해야 합니다.

글 _ 조영선(대학생)

우리나라의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제대로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물 값은 생산 원가의 74% 수준입니다. 생산 원가가 100원이라면 우리는 수돗물을 74원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야말로 진정 밀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싼 수도 요금은 과소비를 부추깁니다.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들지요. 우리 나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나라는 몇 년 안에 아프리카 오지 마을처럼, 몇 시간을 물을 길러 걸어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 물 한동이 받아오고, 그 물로 일주일을 생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젠 공영 방송의 물을 아껴 쓰자, 물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캠페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의식 개혁과 더불어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여주고자 낮게 설정했다는 수도 요금.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전세계의 수자원 보전을 위해서 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할 것 입니다. 수도 요금 올리는 일은 실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병철

저도 조영선 씨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을 아까운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휘발유나 경유라면 이렇게 마구 사용하겠습니까?

정완식

조영선 씨가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심불리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값을 올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영세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님, 물값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느 부분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영선

'서민들의 생활 부담'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수도세를 차등 납부하는 방안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반적인 수도 요금은 인상되어야겠지요.

정상은

저도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조영선

물 사랑 계시판에 가보시면 제가 다시 올린 수도 요금과 생산 원가와와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박윤규

수도 요금 인상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좋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전 유럽이나, 미주 등지에서 사용을 금하는 염소 소독의 각종 문제점을 정부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본 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2003 세계 물의 해 공식 사이트,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 하였습니다.

물 사랑
일기



일요일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2003년 6월 22일 busywork님(사무/관리직)

흔히 일요일은 다른 날 보다 여유롭다고들 한다. 느긋하게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아침밥은 아예 빼 먹거나, 점심 겸 해서 먹는 등 마는 등 하는 걸 보면 여유롭다는 게 정말인 모양이다. 오늘도 늦게 일어나 산책길에 나섰다. 그 사이 주변의 모든 색조가 한층 질푸르게 변해 있다. 시간이 늦어서일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른다. 한 시간 여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장 샤워실로 뛰어 들었다. 아, 이런 시원함에 노동이나 운동의 끝이 더욱 즐거운 것 아닐까? 줄줄줄 흐르는 물줄기에 땀이 씻기어 빼 속까지 시원함을 느낄 때, 문득 내가 흘려 보내는 물의 양이 얼마일까를 생각한다. 일주일 내내 아끼고, 아꼈던 모든 수고가 이 순간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다. 그 여유롭다던 일요일의 허심이 순간의 방심을 불러 한 주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 보면, 일요일을 결코 여유롭다고만 생각할 게 아닌가 보다.

일요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평일에 사용하는 양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낭비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부디 더욱 즐거운 일요일이 되기 위해 모두 다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물 때문에 혼나는 내 동생 민기

2003년 7월 8일 hilee94님(초등학생)

민기는 매일 물 때문에 혼납니다. 왜냐하면 물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받아서 조금만 쓰고 확 버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민기가 못마땅해 매일 주의를 주지만 민기는 그게 버릇인가 봅니다. 민기도 이제 저처럼 이런 물 사랑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처음와서...

2003년 7월 2일 rlaekthf0723님(초등학생)

나는 오늘 처음 이 사이트에 오게 되었다. 여기에 와서 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물을 얼마나 아껴 써야 하는 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슬프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처럼 물을 각자 조금씩 아껴 쓰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물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저번에 TV에서 본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거기에서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물 3컵만으로 샤워를 하시고 충분히 남은 것을 보았다.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 할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닮으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가 될 것 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을 틀어놓고 세수를 한다든지 샤워할 때 물을 많이 쓰는 것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나쁜 점 이다. 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내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는 물을 아끼는 방법을 실천해야겠다. 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이트에서 많이 배웠다.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 실천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명랑하고 깨끗하고 물이 풍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

오호, 정보검색대회 - - - 하고나서,

2003년 6월 30일 julluli님(고등학생)

와, 처음 해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_-)a ㅎㅎ

그렇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 ^^ 몰랐던 걸 여럿 알고 가게 된 듯 - 그리고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 ^^ㅋ 산뜻하고 예뻐졌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 개선된 점도 많은 것 같고, 동호회들을 보니, 물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새삼 내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a 나도 -_-)/ 물 사랑을 쭈욱~ 실천해 나가야지! 정보검색대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헉, 물이 안 나와!!

2003년 6월 29일 allen78님(대학생)

하루 종일 농구로 몸이 달궈질 대로 달궈졌다. 다행히, 그리 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몸에 낀 때와 이물질들은 씻겨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자식들... 그래, 시원하게 샤워 한번하고 단어나 외우자 하는 생각에 들어간 욕실. 어느 때처럼 롤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뭐야? 응? 물이 안 나오네. 아래 위로 훑어보고 때려봐도 요지부동... 젠장,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아, 왜 평소에는 모를 수 밖에 없는 소중한 것들이 내 주변에는 이리도 많을까? 물, 공기, 부모님 그리고 시간들... 그렇게 허무한 맘으로 욕실에서 나와 선풍기를 강으로 틀어놓고 헉헉 거리고 있는데 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다.

“뭐하니?”

난 짜증을 냈다.

“에이!! 더워 죽겠는데 왜 물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어! 안 나온단니까!!”

“이상하다....방금 전까지 세탁기 돌렸는데....”

어머니는 욕실에 가서 확인하시더니 날 부르셨다.

난 짜증을 내면서 그리로 갔다 그리고...

“물 나오는데??”

헉...

내가 돌렸던 수도꼭지는 세탁기에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세탁을 빨리 하기위해 온수 꼭지에다가 세탁기를 연결하신 것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샤워를 끝내고 다시 롤루랄라...

난 또 그렇게 물의 소중함을 잠시 후에 잊어버리고 말겠지... 결국 급한 마음이 절약도 막게 되는 것 아닐까??

